



제62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9일)

불교조각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허형옥 | 301호 불교조각실 | 18:00~18:30

사찰이 아닌 박물관 미술관에 전시된 불교조각[불상]을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반 미술품처럼 조형적 아름다움이라는 심미적審美的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도 얼마든 가능하다. 좀더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미술사적 관점에서 작품의 기본 범주인 형식形式[form]과 양식樣式[style]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대체로 불교 존상에서 ‘형식’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세, 손에 든 물건[지물]의 종류, 옷을 입은 방식, 광배나 대좌의 형태, 문양의 종류 등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한다. 한편 ‘양식’은 그 형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각화 또는 변화되었는지를 가리키거나, 신체의 비례와 양감, 얼굴 표현, 옷주름 새김 등의 조형적 또는 제작기법상의 특징을 뜻하기도 한다. 양식은 특정한 시대, 지역, 민족 등에서 공유되어 하나의 경향성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양식은 형식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이것을 논하는 과정에서 관찰자나 서술자의 주관이 개입되기도 한다.

불교조각을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 보고 6하何 원칙에 의거하여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라는 기본 정보들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상이 명문銘文 또는 복장물腹藏物의 발원문을 지니거나 관련된 문헌기록이 전하면, 제작을 둘러싼 인물과 시대적 배경 등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불교조각은 종교미술로서,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존상이나 장면 또는 장엄莊嚴 요소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불교적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조각의 내용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경전이나 해설서, 교리나 신앙, 의례儀軌나 의식儀式 등을 들 수 있다. 불교조각의 내용은 넓은 의미에서 도상圖像[iconography]으로 이어지는데, 이 도상적 요소들은 시대나 지역이 다르더라도 불교미술이라는 공통의 기반으로서 암묵적 약속처럼 이어지며 보편성을 띠고 반복되는 예가 많다. 아울러 불교조각이 사찰의 전각 등 본래의 장소에 봉안되었을 때, 불화나 불구佛具 등과 함께 어우러져 어떠한 의미체계를 창출하며 종교적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불교조각의 조형적, 역사적, 종교미술적 측면들은 서로 별개의 영역은 아니며,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얹혀 있다. 불교조각의 이같은 다층적 속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62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1월 9일)

특별전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한수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고대 중국의 역사서에 돌궐突厥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튀르크족은 무덤 및 제사터 주변에 석인상을 세우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전하는 이러한 석인상을 통상 ‘튀르크인 조각상’이라고 부릅니다. 튀르크인 조각상은 한손 또는 양손에 잔이나 병과 같은 기물을 들고 있습니다. 남성상 중에서 턱수염이 있는 상상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콧수염이 있는 상은 다수 확인됩니다. 또한 얼굴뿐 아니라 머리카락, 모자, 귀걸이, 목걸이, 무기 등까지 상세하게 표현된 석인상도 볼 수 있습니다.

튀르크 사람들이 남긴 비문에 발발(Balbal)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발발이란 무덤의 주인을 위해 살아 있는 자를 죽여서 세운 상을 의미합니다. 튀르크 사람들은 살해된 이의 영혼이 발발이 되어 죽어서도 주인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발에 대한 해석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로 보기도 하며 고인이 머무는 무덤 주위에 말을 매어 놓는 기둥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에 오셔서 중앙유라시아의 상징 ‘튀르크인 조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포스터



그림2. 튀르크인 조각상

도장을 찍어서 장식한 인화 분청사기

강경남 | 304호 분청사기실 | 19:00~19:30

◇ 분청사기란?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줄임말로 회청색 바탕흙으로 형태를 빚고 그 위에 고운 백토로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 구운 도자기를 말합니다. 분청사기는 청자가 변화하는 단계에서 생겨났지만 고려청자와 다른 새로운 무늬와 장식 기법으로 만든 새 시대의 자기였습니다. 꾸밈없고 질박한 형태, 여러 가지 장식 기법, 자유롭고 대담한 무늬가 특징입니다. 분청사기는 15~16세기에 걸쳐 약 150년 동안 유행했으며, 백자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16세기 이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 인화 분청사기는 어떻게 만드나?

문양이 새겨진 도장으로 무늬를 찍은 후 백토를 감입하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릇의 품질, 모양, 크기 등을 일정한 표준이나 격식에 맞출 때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5세기 초반에는 큼직한 단독 문양이 뚜렷하게 장식되었으나 점차 무늬가 작아지고 그릇 표면을 뺄뺄하게 채우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15세기 중엽에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푸른색이 감도는 유약을 씌워 정결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 이 시기 인화 분청사기의 특징입니다.

◇ 왜 만들었나?

인화 분청사기는 숙련된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물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국가재정체제가 정비되면서 왕실과 중앙관청의 소용 물품을 전국 각지에서 현물現物로 수취하게 됩니다. 공납貢納받는 물품의 품질을 규격화하면서 공예품, 특히 그릇의 경우 정형화된 조형양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요. 바로 인화 분청사기가 전성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화무늬로만 장식된 것도 있지만 해당 관청이름 또는 생산지역도 함께 상감된 예가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품질관리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분청사기인화문병, 높이 27cm

같은 크기의 도장이 빼곡하게 찍혀있는 인화 분청사기를 통해 조선 전기 세금 중 한 품목이었던 그릇에 반영된 국가의 재정운영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2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9일)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6)

정명희 | 기획전시실 | 19:00~19:30



동북아시아의 ‘중세’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격변하는 시기로,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고려(918~1392)는 여러 민족이 난립하던 격동의 시기에 독창적인 미술을 꽃피운 우리의 중세왕조이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코리아’라는 호칭이 고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는 아직도 ‘고려인이 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유전자를 이루는 중세에 대해 기억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번 특별전은 유물이라는 물질문화로 풀어내는 고려 이야기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건, 시간의 연대기적 흐름을 서술하는 전시 방식에 비해 미술로 보는 역사는 남겨진 것에 기초해 스토리를 쌓아간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출발한다. 밖으로 열려 있던 사회, 고려의 바다와 육로를 통해 드나든 다양한 물산과 교류 양상을 살펴본다. 고려는 앞선 왕조가 지닌 문화적 전통을 배척하지 않고 다원적인 태도로 융합했으며,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수용하여 한국문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대고려전’은 미술품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적 관계와 교류의 과정에서 창출된 문화적 성취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부로 향해 열려 있던 ‘수도 개경’과 ‘고려의 사원’, ‘다점’이라는 세 공간을 고려 미술을 읽는 주된 공간으로 설정하고, 고려의 사원을 느린 걸음으로 거닐었을 때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다. 차가 고려인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에 주안점을 두어, 차를 마시던 공간에서 바라보았을 경치와 컹가를 스쳤을 소리, 실제 차를 뒤는 향을 전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고려 미술을 살펴보는 여행은 현재 시점의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여러 점에서 맞닿아 있다. 고려는 때로는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나라였다.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포착하고 그것을 색과 재료, 기술적 성취를 통해 미술로 구현했다. 두 살짜리 아이의 장수를 비는 간절한 염원, 다음 생에는 뛰어난 명의名醫로 사람을 구하거나 숭고한 예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화승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꿈꾼 여인의 발원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천 년 전에도 다양한 이종이 모여 뛰어난 변종을 만들어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창의적인 사고와 영감을 불러오는 근원이 궁금하다면 이번 전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